

“韓, 제조·혁신 경쟁력 우수... 인구·기후대응 개선 필요”

무협 '세계속의 대한민국 2022'

명목 GDP 2년만에 12위→10위
1인당 GDP 3만5004달러 29위

반도체 매출·휴대폰 출하량 1위
해외고급인력 유인지수 49위로

우리나라가 제조와 연구개발, 혁신 분야에선 세계 최상위의 경쟁력을 갖는 반면, 해외고급인력 유인지수나 기업가 정신 등 노동분야 경쟁력은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발간한 '세계속의 대한민국(2022)'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2019년 12위에서 2021년 10위로 상승했고, 1인당 GDP는 30위에서 29위로 순위가 상승했다.

같은 기간 일본의 1인당 GDP는 25위에서 27위로 하락하면서, 한-일 격차가 축소됐다. 지난해 기준 한국의 1인당 GDP는 3만5004달러로 일본(3만9301달러)보다 약 4300달러 낮은 수준이다.

〈통계집 세계속의 대한민국(2022) 제조산업 부문 순위〉

/자료=무협

지표명	단위	이전			이후		
		연도	수치	순위	연도	수치	순위
조강 생산	(백만MT)	'19	71	6	'21	71	6
선철 생산	(백만톤)	'19	47.6	4	'21	46.4	5
자동차 생산	(천대)	'19	3,951	7	'21	3,462	5
자동차 판매	(천대)	'19	1,795	11	'21	1,735	10
선박 수주	(백만CGT)	'18	11.3	1	'21	17.5	2
반도체 매출액	(십억달러)	'19	55.6	2	'21	73.2	1
휴대폰 출하량	(백만대)	'19	296	1	'21	272	1
정제석유제품 생산	(MT)	'19	156	5	'21	147	6
에틸렌 생산	(천톤)	'19	8,784	4	'21	12,700	4
합성수지 생산	(천톤)	'19	13,786	4	'21	15,245	4

제조업 지표를 보면, 반도체 매출과 휴대폰 출하량 부문에서 한국이 세계 1위에 올랐고, 기타 품목에서도 대체로 5위 이내 순위를 유지했다. 선박 수주는 2위, 에틸렌과 합성수지 생산은 각각 4위, 선철과 자동차 생산은 각 5위다.

연구·혁신 부문에서는 양호한 성과를 보였으나 고급인력 유치와 기업가정신은 약화됐다. 연구개발투자(5위), GDP 대비 연구개발투자 비중(2위) 등이 높은 순위를 유지한 가운데, 외국인직

접투자(FDI)도 2019년 대비 6계단 상승한 24위다.

혁신 부문에선 세계혁신지수가 10위에서 5위로, 블룸버그 혁신지수는 2위에서 1위로 올라섰다.

반면, '해외고급인력 유인지수'는 43위에서 49위로 내려앉았고, '기업가정신'도 5계단 하락한 50위에 그쳤다.

국가경쟁력 부문에서는 국가이미지는 개선되는 반면, 경제주체인 기업과 정부의 운영 효율은 하락한 것으로 나

타났다. 국가이미지는 2020년 13위에서 2022년 5위로 꺾중 뛰어올랐고, 경제자유도도 25위에서 19위로 상승하는 등 대외 이미지가 전반적으로 향상됐다.

반면, 정부·기업의 운영 효율과 경제 성과를 종합한 IMD 국제경쟁력 지표는 23위에서 27위로 하락하고, 투명성 지수도 32위에서 38위로 떨어졌다.

환경 분야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그린 전환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간(2012년~2021년) 기후재난건수는 15건으로 이전 10년(2002년~2011년)의 13건보다 늘어나 16위를 기록했고, 환경오염 영향도 역시 2020년 22위에서 2022년 5위로 급상승하며 환경오염의 부정적 영향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환경오염 대응 지표인 환경정책 엄격도는 2018년 12위에서 2020년 16위로 하락했고, 신재생에너지 생산 증가에도 불구하고 탄소감축은 더뎠다. 기후대기 대응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 부문에서는 노동시간과 청년 실

업률 등 양적 지표는 개선된 반면, 인건비나 노동생산성 등 질적 지표는 하락했다.

저출산·고령화로 인구증가율(184위)과 출산율(248위) 순위가 하락한 가운데, 노동시간 감소와 청년실업을 하락 등 양적 노동지표는 개선됐다.

인건비 증가속도를 나타내는 '단위 노동비용 증가율'이 12계단 상승(10위)하고, 노동생산성은 1계단 하락(30위)해 질적(생산성·비용) 지표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무협협회 장상식 동향분석실장은 "코로나19 이후 한국은 우수한 제조 경쟁력을 바탕으로 연구개발·혁신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나, 인구·노동 구조 및 기후위기 대응이 미흡하고 국가경쟁력과 기업가정신이 약화되고 있어 경제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서는 그린 전환 가속화에 동참하는 한편, 노동생산성과 정부·기업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통해 국제경쟁력과 기업가정신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세종=한홍수 기자 hys@metroseoul.co.kr

6000평 中企전용 스마트물류센터 짓는다

중진공-인천국제공항공사 “중소화주 기업 해외판로 개척 지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제2공항물류단지 사회적 사업권 공동물류센터 개발협약'을 체결했다.

23일 중진공에 따르면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인천공항 제2공항물류단지 내 6000평 규모의 중소기업 전용 물류센터를 조성, 성장 잠재력이 풍부한 국내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전자상거래 기업 지원을 위한 물류센터 개발에 착수한다. 또 항공 물류를 이용하는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제품 보관, 운송, 수출통관 서비스 등 물류 전 분야를 지원하는 '윈클릭&윈스톱 물류 플랫폼'을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연간 물류 규모와 상관없이



경남 진주에 있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모든 참여 기업에 동일한 서비스를 할 인된 요금으로 제공하고, 희망 기업을 대상으로 전문가를 활용한 물류 애로 컨설팅 등 정책 지원도 연계한다.

인천공항공사는 제2공항물류단지내 부지 조성과 공동물류센터 건설을, 중진공은 첨단설비 투자 및 유망 기업 발굴과 공동물류센터 운영을 담당한다.

물류센터는 스마트물류시스템 관리 경험을 갖춘 전문기업을 수행사로 선정

해 오는 2024년 말 운영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인천공항공사 김경옥 사장은 “국내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전자상거래 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공동물류센터 개발에 힘을 합치게 됐다”며 “물류 처리 우선순위가 밀리거나 상대적으로 더 높은 물류비를 부담하고 있는 중소 화주 기업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진공 김학도 이사장은 “코로나19 팬데믹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촉발된 글로벌 물류 대란 장기화로 중소벤처기업의 물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단순 물류 공간 제공을 넘어 스마트한 물류 인프라 구축을 통해 수출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뒷받침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승호 기자 bada@



한전, 어르신에 장수사진 '찰칵'

한국전력이 전력설비 건설지역 어르신들의 무병장수를 기원하며 장수사진과 가족사진을 무료로 촬영해주는 '바퀴 달린 청춘사진관'을 운영하고 있다.

/한국전력

퇴직연금 우수사업자에 미래에셋 등 4곳

고용부, 사업자 40곳 대상 평가

올해 수익률 등 성과를 낸 퇴직연금 우수사업자로 미래에셋증권, 신한은행, IBK연금보험에는 푸본현대생명 4곳이 선정돼 고용노동부장관상을 받게 됐다.

23일 고용부가 퇴직연금 사업자 40곳을 평가한 결과 이들 4곳이 올해 성과가 가장 우수한 사업자로 뽑혔다.

평가는 수익률과 운용 역량, 조직·서비스 역량, 교육·정보제공 역량, 수수료 효율성 분야 등 총 5개 항목으로 이뤄졌고, 항목별 상위 10% 사업자들이 공개됐다.

우선, 원리금 보장상품 중 수익률이

우수한 사업자로 롯데손해보험, 미래에셋생명, 흥국생명, IBK연금보험이 선정됐다. 원리금 비보장상품 운용사 중에는 미래에셋증권, 하나증권, IBK연금보험, NH투자증권이 꼽혔다.

아울러, 투자상품 선정 전문조직 보유 등 운영역량이 우수한 사업자로 미래에셋증권, 삼성화재, 신한은행, KB국민은행, NH투자증권이 포함됐다.

각 사업자가 유리한 상품의 성과만 제시할 수 있어 1·3·5·10년의 장단기 수익률을 종합 평가해 선정했다는 게 고용부 설명이다.

자세한 평가 결과는 고용부 누리집(www.moel.go.kr)에서 볼 수 있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

향산화 효과 4배 국산참깨 신제품 개발

농진청, 리그난 함량 높은 '밀양74호'

향산화와 인지기능 개선 등의 효과가 있는 성분이 일반 참깨보다 4배 많은 기능성 국산 참깨 신제품이 첫 개발됐다. 외국산 의존도가 높은 참깨 수급난 해소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농촌진흥청은 23일 리그난(Lignan) 성

분 함량이 높은 기능성 참깨 '밀양74호'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참깨는 참기름과 깨소금 등으로 이용되며 음식의 풍미를 돋아주는 중요한 식재료다. 불포화지방산과 단백질이 풍부하고, 갈슘과 리그난 등과 같은 유용성분도 함유돼 있다. 그 중 리그난은 특히 향산화, 인지기능 개선 등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성분으로 참깨

와 아미, 오미자 등에 함유돼 있다.

밀양74호의 리그난 함량은 1g당 17.0mg으로 일반 품종인 '건백' (4.1mg)보다 4.1배 많다. 이는 아미씨(3mg), 오미자(6mg) 등의 리그난 함유량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효능 검증 연구 결과, 인체 신경세포 실험에서 밀양74호의 추출물이 손상된 신경세포의 생존율을 49%에서 119%까지 높인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일반 품종 건백의 88%보다 1.4배 향상된 수치다.

/세종=한홍수 기자

비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FTX에 2000억 날린 美 벤처투자사... “실사 과정 개선할 것” 사과
▲英존슨 “佛, 러 침공 가능성 부정...獨, 우크라 조기 패배 선호” 폭로 /사진 뉴시스

▲유엔 예멘특사 “정전 연장뿐 아니라 8년 내전 끝낼 것”
▲WHO, 원숭이두창→M두창으로 이름 변경...23일 발표 가능성



▲대만 둘러싼 갈등으로 중단된 美中대화 속속 재개
▲“사우디 왕세자, ‘필요없다’ 판단 방일 취소...중국식 발전노선 지향” /사진 뉴시스